22괘 - 산화비 - 121221

전체 : 비賁의 길은 형통함이 작다. 이로운 것은 가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.

1효 : 처음에 양이 오니, 그 발의 다채로움을 존중해서 그대로 두니 수레를 버리고서 걸어 다닌다.

2효 : 음이 두 번째에 오니, 그 수염을 그대로 둔다.

3효 : 양이 세 번째에 오니, 다채로움을 존중해서 그대로 두는구나! 조금씩 변하는구나! 오래도록 정貞하면 길하리라.

4효 : 음이 네 번째에 오니, 다채로움을 존중해서 그대로 두는구나. 하얗구나! 백마가 날아오르는 듯하구나! 쳐들어갈 것이 아니라 혼인동맹을 맺어야 하리라.

5효 : 음이 다섯 번째에 온 것은, 다채로움을 존중해서 그대로 두다 보니 (읍이) 시골처럼 되어 버린 상이다. 1속의 비단은 너무 적으니 인색하리라. (하지만) 종국에는 길하리라.

6효 : 극상의 자리에까지 양이 온 것은, 다채로움을 (완전히) 흰색으로 만들려드는 상인데, 허물은 없으리라.

전체 : 비賁의 길은 형통함이 작다. 이로운 것은 가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.